

직업

모임 23: 후기, 욥기 42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23, 에필로그 작업 42입니다.

에필로그 소개 [00:23-2:04]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책을 끝내는 산문 부분인 에필로그에 도달했습니다. 42:7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연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느슨한 끝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느슨한 결말입니다. 에필로그가 책의 결론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슨한 끝을 묶을 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9절에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질책과 화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리의 대변인인 것 같은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취하여 내 집으로 가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것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내가 그의 기도를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갚지 아니하니라

이제 무엇보다 먼저 엘리후가 아니라 세 친구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엘리후는 이 견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책에 추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견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역 문제: "나에 대한" 2:04-3:18이 아니라 "나에게 진실" 2:04-3:18]

그러나 우리는 여기 번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욥기에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NIV는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번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네코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느코나*는 어떤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검증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검증 가능한 진리의 개념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동사와 그 뒤에 오는 전치사의
조합입니다. NIV는 그 전치사를 "about"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동사와 전치사의 조합이 구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참석한 누군가에게 말하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에필로그 진술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3:18-5:17]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번역가들이 왜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선, 그것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이전 연설에서 하나님께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욥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책 전체에서 욥이 말한 모든 것이 옳거나 사실이 아니 *있음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욥은 그가 말한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승인을 받은 것은 욥이 야훼에게 방금 말한 것뿐이고 그것은 그가 책 전체에서 말한 것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이 말한 모든 것이 옳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욥의 반응을 인정하고 친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교되고 질책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게 옳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욥처럼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석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에필로그의 수사학적 전략: 보응원칙의 복직이 아님 [5:17-8:22]

자, 에필로그의 수사적 전략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책에 대한 정당한 결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욥의 번영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가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솔루션 종류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그것은 공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에게 더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해서 자녀를 잃은 슬픔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책이 사고 실험이라고 제안했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녀들에 대해 슬퍼하는 실제 욥을 상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고 실험 프레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회복, 안타깝지만 욥의 형통 회복은 보복원칙의 재부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응원칙의 부적절함을 확립시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다시 들여오나요? 이것들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 가졌던 몇 가지 문제들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의 초점이 하나님의 정책임을 상기하십시오. Challenger는 의로운 사람들이 번성하기 위해 고통받는 것은 형편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형편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 27장에서는 욥이 번영이 아니라 의로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도전자의 주장을 탐구합니다. 욥은 의를 위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는 공짜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은 욥의 주장을 다루며 의로운 사람들을 변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변함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정책이 아닙니다. 에필로그에서 욥의 형통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이전과 같이 계속 행하실 것이며 그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정책에 대한 도전은 튕겨 나갔다. 그래서 그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복원합니다. 도전자와 욥이 제시한 사례는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 원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선물로서의 변명 [8:22-9:08]

욥은 이제 자신의 변명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기초가 되는 보복 원칙에 따라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변명은 그가 얻은 보상이나 하나님이 주셔야 할 보상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하는 모든 변명은 명백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욥의 형통의 회복은 그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욥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원의 요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에 관한 것입니다. 욥의 새로운 변명을 통해 하나님의 도전적인 정책이 회복됩니다. 의인의 형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질서를 이루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에필로그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미래의 만족에 대한 기대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책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물로서의 욥에게서 배우거나 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을 그의 자리에 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충분히 쉽게 제공됩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 우리의 반응을 모델링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책은 욥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전제 위에서 작동하도록 구속되지 않습니다.

욥의 번영과 삼각관계의 회복: 정의가 아닌 지혜 [9:08-14:39]

욥의 형통 회복은 무조건 보복원칙의 재부착과 같지 않다. 욥의 축복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책도 세상의 운영도 신정론으로 적용되는 보응 원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각형의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복 원칙, 욥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디에 요새를

세웠으며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지와 함께 이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각형의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하지 않습니다. 신은 삼각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고 버리십니다. 신은 삼각형 아이디어를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간단한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틀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의가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삼각형을 늘리고 표면 목적으로 작업했지만 여전히 삼각형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은 삼각형에 맞지 않습니다. 삼각형은 거부됩니다. 우리는 주장의 삼각형이 없습니다. 그 근거는 정의가 아니다. 기초는 지혜입니다. 보복 원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과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파급 효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옴의 경험에 우리의 기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옴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며, 책은 마치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독자들의 공백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 책이 제공하는 유일한 설명은 고통이 만연하고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에필로그는 책의 완벽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정책에 대한 도전이 해결되었습니다. 신과 우주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어리석은 생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는 책의 결론이지만 책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다.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에필로그, 욕기 42장입니다. [14:39]